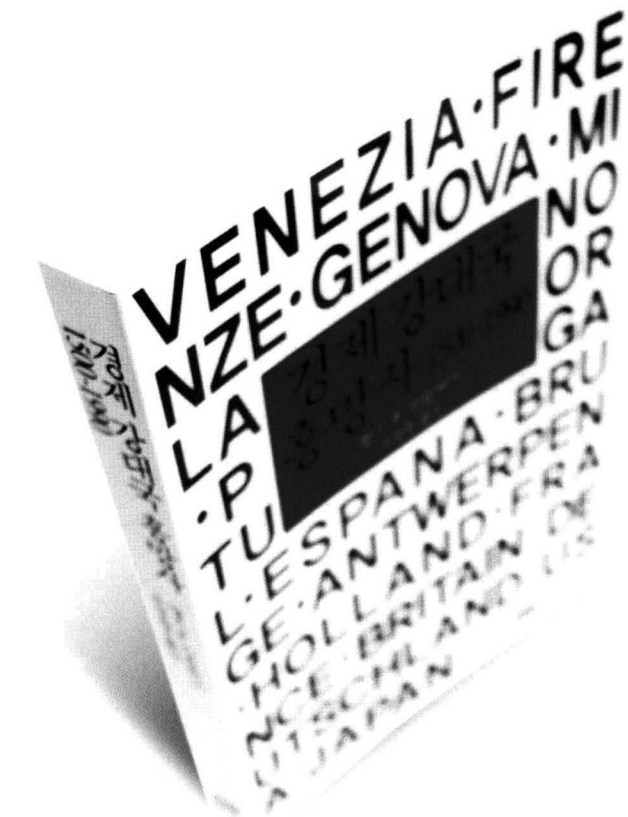


경제 패권은 돌고 돌고, 언젠가 우리에게도 기회는 온다



● 이 글을 쓴 최용식은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5년간 대한투자진흥공사에서 근무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과학적으로 해체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세우겠다는 뜻을 품고 직장을 그만둔 뒤 30년 넘게 이 문제에 천착했다. 현재 21세기경제학연구소 www.ecnms.pe.kr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글쓰기 작업을 하고 있으며, 쓴 책으로는 《사상과 경제학의 위기》《경제역적들이 들어리》 등이 있다.

이 책이 미국에서 처음 발간된 것은 1996년이고, 우리나라에서 번역되어 나온 것은 2004년 연말이다. 무려 8년이 넘게 지나서야 우리 독자들도 이 책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은 경제학자가 아니라, 서양사학자가 번역했다(경제사도 역사지만). 이런 사실들은 우리 경제학계와 출판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훌륭한 책을 그 많은 경제학자들 중에서 번역하려는 사람이 왜 나타나지 않았을까? 8년이 지나도록 무엇을 했더라는 말인가? 경제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국내 출판계의 열악한 사정을 절실히 겪어본 사람은 그 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책을 번역하더라도 역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기 어렵고, 출판사로서도 손해를 안 보면 다행인 것이 우리나라 출판계의 현실인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은 그 내용을 떠나서 번역서가 원서보다 훨씬 이해하기 쉽고 문장도 탁월하다는 점을 무엇보다 높이 사고 싶다. 저자인 킨들버거의 저서들이 다 그렇지만 반어법과 은유법이 많고 생략과 비약이 심하며 모호한 표현까지 여기에 가세하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거의 완벽하게 소화해냈다는 점이 우선 놀랍다. 영문학자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이런 훌륭한 번역을 해냈는지, 한때 번역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그저 부럽기만 하다. 흠이 있다면, '금융'으로 번역해야 할 단어finance를 '재정'으로 오역한 부분 정도를 거의 유일하게 꼽을 수 있을 뿐이다.

이 책의 내용 역시 경제학자나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읽어볼 가치가 있을 정도로 훌륭하다. 특히 경제정책을 직접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책당국자는 물론이고, 여기에 간접적으로 간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읽고 숙지해야 할 책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감상이다. 국가경제의 흥망을 결정했던 변수들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올바른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시장경제가 지배적인 현상으로 확립된 이후, 세계의 경제패권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이동해 왔다(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속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동양의 향료와 도자기와 견직물 등을 유럽내륙에 중개하여 부를 축적했던 이탈리아 반도의 도시국가들은 '대항해시대'를 열었던 포르투갈로 경제패권을 넘겨줘야 했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금을 약탈하고 광산을 개발하여 부를 축적한 스페인은 포르투갈로부터 경

제패권을 물려받았다. 그 뒤를 이어 북유럽과 대륙에 대한 중개무역과 당시로서는 첨단산업이었던 모직물과 도자기 제조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보유했던 네덜란드가 경제패권을 차지했다. 곧 이어, 바다를 장악한 해군력과 산업혁명으로 무장한 산업력 그리고 식민지 수탈 등을 앞세운 영국이 경제패권을 장악했고, '태양이 지지 않는다'던 이 제국마저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는 미국에게 그 지위를 양보해야 했다. 초강대국이라는 평가를 듣는 미국도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일본과 독일에 의해서 심각한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

경제패권을 잡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경제패권을 잡았던 나라들은 그 기간이 길고 짧은 차이는 있었지만 한결같이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던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 경제의 장래를 위해서도 좋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며, 세계의 경제패권을 장악할 발판을 제공할 수 있을지 모른다.

여기에서 잠깐,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패권을 장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미리 포기하지는 말자. 경제패권을 장악했던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규모가 월등하게 컸던 나라는 미국이 유일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중국 등 거대국가들은 도저히 우리의 경쟁상대가 될 수 없다고 미리 포기하지도 말자.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경제패권을 잡던 시절에도 중동에는 셀주크투르크와 그 뒤를 이은 오스만투르크라는 거대한 국가가 존재했었고, 유럽대륙에는 신성로마제국이 존재했었다.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또는 네덜란드나 영국도 큰 국가는 결코 아니었다. 기회는 도전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도전도 하지 않고 미리 포기하는 자는 기회조차 잡을 수 없다. 우리 민족이 경제패권을 잡았던 다른 민족보다 열등한 점이 무엇이란 말인가? 제발 미리 포기하는 짓은 하지 말자. 자학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자. 우리도 경제패권을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고 믿어보자. 그러면 기회는 언젠가 찾아올 것이다.

각설하고, 경제패권 국가들이 쇠퇴해 갔던 공통점을 찾을 수만 있다면, 설령 경제패권을 장악하지는 못하더라도 장기적인 경제변영어나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을 명확하게 밝혀줄 것이다. 그런 공통적인 특징만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면, 경제가 장차 쇠퇴하는 일은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을 것이

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해결에 이 책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물론 이 책은 단정적인 결론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해결책은 독자가 스스로 찾아야 하고, 다양한 견해가 도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이 부정적이거나 헛된 결과만을 부르지는 않을 것이다. 활발한 논쟁과 토론을 불러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나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는 것을 보고 싶다.

이 책은, 서문에도 나와 있듯이, "1990년에 룩셈부르크 유럽국제연구소Luxemburg Institute for European and International Studies가 '국가들의 생명력The Vitality of Nations'이라는 주제로 주최한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의 성과물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1990년이라는 연도이다. 당시는 서양문명이 쇠퇴하고 동양문명이 부흥하여 패권을 이어받을 것이라는 견해가 대두하여 힘을 얻던 때이다. 특히 일본이 경제적으로 전성기를 맞아 서양, 특히 미국에게 공포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었다. 룩펠러 빌딩이나 콜럼비아 영화사 등 미국의 상징물들을 일본이 줄줄이 매입함으로써 '제2의 진주만 폭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돌기도 했었다. 쉽게 말해서, 그 프로젝트는 이런 국면을 타개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런 점은 서양문명이 세계적인 패권을 지금까지 유지하게 해온 배경을 짐작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미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경제 강대국 흥망사 1500-1990》 찰스 P. 칸들버거 지음 | 주경철 옮김 | 까치(까치글방) | 416쪽 | 값 18,000원